

#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험과 성과

조준배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의 배경

글로벌 시대는 국가 간 경쟁을 세계 도시들 간의 경쟁으로 변화시켰고, 지방자치제는 지방도시들 간의 경쟁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들의 생존전략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도시의 공간 환경과 건축·도시디자인을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즉 지금까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과 관 주도의 공적인 영역이 성장과 개발시대의 주요한 정책적 관심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디자인 서울을 시작으로 한 공공 디자인의 열풍, 그리고 「건축기본법」과 「경관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장소를 중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됐으며, 특히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건축의 새로운 역할이 잘 반영되었다.

또 이러한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구자들인 ‘사회적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무주의 건축가 고정기용 선생님, 최초 공무원 건축가로서 포항의 테라노바 팀장이며 시정건축가인 도창환 등 자생적인 무수한 건축가들의 노력이 법에 근거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기도 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을 일상적 생활공간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문화적 유산으로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천명했다. 또 이러한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축기본법」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제안했다. ‘민간전문가 제도’란 건축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일하며, 주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의견을 통합·조정하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라고도 부른다.

공공건축가는 크게 개별사업을 기획부터 준공까지 총괄·관리하는 ‘사업 총괄형’과 지역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지역 총괄형’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축가(민간전문가)의 역할은 「건축기본법」(제23조 시행령 21조)에 명시돼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자문, 기획·설계, 총괄·조정 및 관리 등의 역할\*이며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역할뿐 아니라 업무범위, 그리고 권한 등도 스스로 찾아서 규정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역할 제23조 시행령 2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 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인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조직 배경 및 목적

영주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2007년부터 지속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지원\* 과 연구협업이 있었다. 2008년 영주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시재생 방안’ 연구를 요청하였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건축통합의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개별사업별로 진행되던 공공사업들을 장소 중심의 사업들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각 부서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총괄 관리 조직과 공공건축가 주도 행정지원의 협력적 디자인관리체계를 제안했다.

2009년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2명의 건축·도시 분야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개별사업별 자문을 실행하면서 디자인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양한 부서의 협업과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장소로 인식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통합하는 코디네이터와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영주시에서도 공감해 2010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공공디자인 분야 공공건축가 1명을 위촉하고, 전담부서인 디자인관리단과 운영조직을 설치하게 되었다. 즉 영주시는 지역총괄형 공공건축가인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과 사업총괄형 공공건축가인 영주시 공공건축가 모두를 위촉해 활용하고 있다.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영주시의 협력을 통한 하나의 실험이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우선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적 체계로서 기획력 강화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행정·주민의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와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조직체계를 구축해 장소중심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것이다.

다음은 사용자 참여와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 주민·전문가·행정의 협의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행 수단을 갖춤으로써 중소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의 운영체계와 주요 활동, 최근 동향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은 시장 직속으로 디자인관리단장과 도시·건축·공공디자인 등 전문 분야별 공공건축가 3명이 시로부터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국 내 도시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계 공무원 3명은 실질적 행정지원부서의 역할을 하는 지원적인 운영조직체계이다. 그리고 중앙부처 시범사업 총괄 MP, 지역 NGO 단체, 그리고 사업단위별 주민협의체 등은 민간협력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각의 역할과 업무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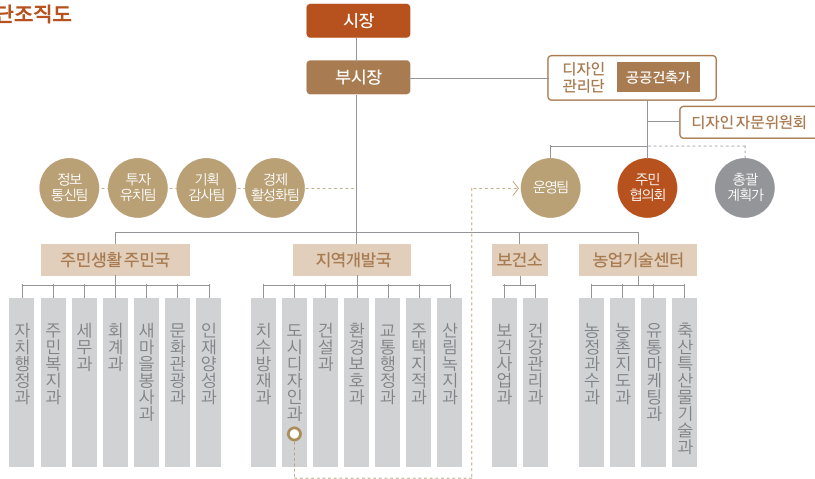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며, 또 공공건축가 역할 및 운영 등도 전국 최초로 수립한 지역건축디자인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관리단은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각 부서의 사업들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부시장급 권한을 가진다. 비상근 형태로 일주일에 2일 주로 목·금요일에 근무하며, 임기기간은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는 자문에 응하거나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필요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해 영주에서 자문회의를 하는 상시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임기기간은 1년으로, 현재 공공건축가 3기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관리단장은 연초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디자인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디자인 관리대상임을 알리며, 선정된 사업은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자문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민간영역 중 특정 관리지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은 허가 전 단계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2007년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서수정 외 2명) 연구에 영주시 공공건축 현황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연이 됐으며, 2008년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조준배 외 2명) 연구에서는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플랜(3개 핵심 축과 7개 거점 프로젝트 발췌)을 수립했다.

##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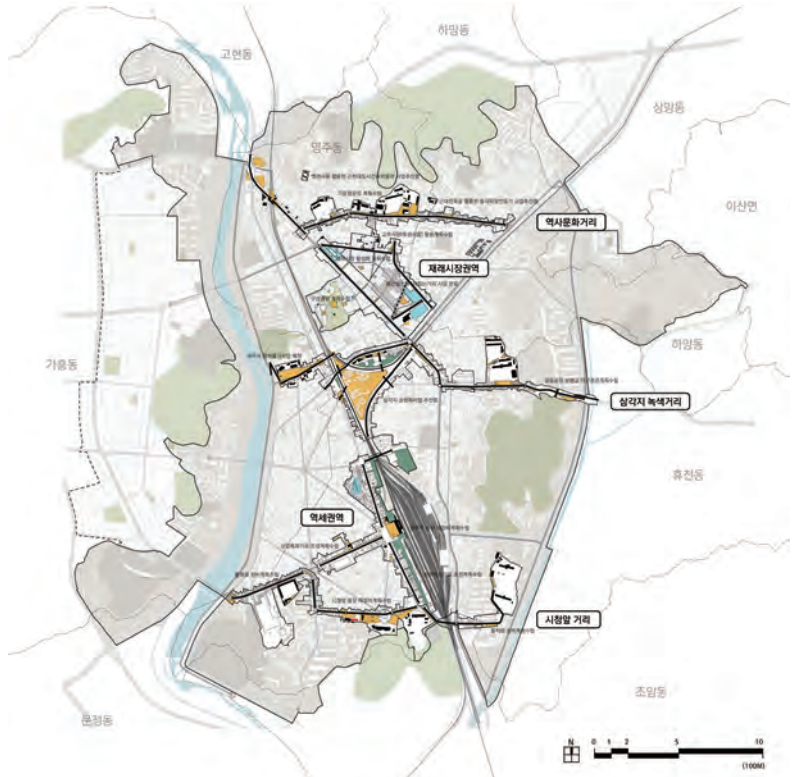
상 설 : 디자인 관리단장 1명  
 디자인 자문위원회 15명 (임명직 2, 위촉 13)  
 운영팀 : 도시디자인과 내 공공 디자인계 13명  
 재생TF팀 구성 인가(2012.07)

비상설 : 공공건축가(민간전문가) 3명  
 주민협의회(현재 안전행정부 시범사업 7명)  
 총괄계획가(현재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시범사업 2명)

출처 : 조준배 외,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시재생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 영주시 도시 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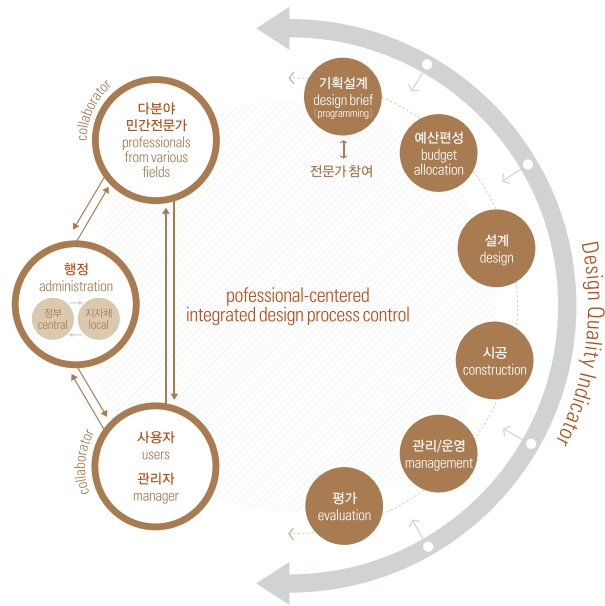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핵심 축과 7개의 거점으로 구성된 영주시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출처 : 조준배 외,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시재생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 협력적 디자인 관리 체계

개별사업의 디자인 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과정을 전문가주도로 관리·조정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이고 전문가주도 행정 지원의 디자인관리체계



출처 : 서수정, 「최고 가치의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협력형 설계관리 체계 도입방안」(미발표자료), 2008

서 제한적이지만 디자인과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도 연초에 디자인관리단장과 협의해 전문 분야별로 사업을 디자인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업담당자와 설계자에게 알리는 등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의 '경관 및 디자인 조례'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디자인과 경관기본계획 등 경관디자인 정책과 가흥동택지구, 영주담과 주변 개발촉진지구 등 특정지역,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시정건축가로서 시의 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한다.

둘째, 좋은 공간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장소중심으로 연계하고 총괄·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풍기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가지 개별사업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마스터플랜에 의해 진행된 사업과 동일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했다.

셋째, 가장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별로 자문을 하면서 사업의 초기기획 의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디자인관리단장의 자문 응대 횟수는 500건 이상으로, 2011년 25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하는 등 디자인 관련 자문 활동이 정착돼 가고 있다.

넷째,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통한 거점과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사업을 유지관리한다.

다섯째,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의 거점 사업들의 세부 기획 연구나 통합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새로운 기획연구에 대한 기획·관리 활동을 한다.

여섯째, 지역 내 경찰서·교육청·세무서 등 다른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과 디자인 관리 요청 시 디자인 관리를 지원한다.

일곱째, 공무원과 지역학교 건축 및 공공 디자인과에 대한 디자인 관련 교육, 디자인 관리단의 업무와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주시 공공건축가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위촉됐으며 연초에 선정된 디자인관리대상인 개별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지정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총괄하며, 관련주체 간 의견을 조정하는 디자인 검토 조연과 관리대상인 사업과 관련된 심의나 심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시의 디자인 정책수행을 위한 가흥택지지구의 디자인 가이드, 정자 및 심터에 대한 가이드 등과 같은 디자인관리단의 업무보조 활동에도 참여한다.

영주시 공공건축가의 특징적 활동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시범사업의 실행이다. 기존의 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고 좋은 건축가와 행정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의도했다. 디자인 시범사업은 공공건축가(1기) 또는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와와의 협력(2·3기)을 통해 지역의 디자인 역량 강화와 관련주체 간의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했다.

2013년 최근의 디자인관리단은 기획업무의 강화와 재생법 통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디자인관리단의 주요 활동은 도시의 근린재생과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 센터와 마을만들기 센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또 도시재생 TF팀을 디자인관리단 내 실무조직으로 편성하고, 기존 서울 지역의 공공건축가에서 벗어나 경북 지역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며, 지역의 건축·디자인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등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농촌지역인 풍기를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읍·면 지역과 자연마을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공간 전략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촌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지역창의 사업 2건 등 모두 3건의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자인관리단은 단산·순흥·부석 등 농촌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을 지속적으로 기획 중이다.

##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운영의 개선 방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은 외형적인 결과를 조금씩 만들어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내부적인 시스템의 실험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운영의 어려운 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관 및 디자인 조례’의 제정으로 기획업무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실에서는 아직 각 과에서 수행하는 초기 기획 업무를 디자인관리단장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특히 기

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은 정책적 기획, 즉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 감사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참여의지 등으로 보상이 자주 결렬되고, 고추시장처럼 무조건적으로 시의 보상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기적 태도 등 함께 상생하는 협력적 태도 부족으로 사업의 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주민리더 양성과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생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디자인 자문은 부서별로 진행되는 법정 심의기구나 설계자문위원회 등과의 중복으로 인해 사업 지연과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이나 심의 내용에 중복이 없도록 부서별로 조정하는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미 자문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도시계획 심의 때 디자인관리단장이 참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위촉된 영주시 공공건축가의 활동은 사업에 대한 권한, 과업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소비적인 자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디자인관리단장은 조례에 의해 근거를 두었으나 공공건축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총괄형 공공건축가에 대한 가이드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적용하거나 조례의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

디자인관리단의 활동 중 잠재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활동의 지속성 확보이다.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전 지자체장의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디자인관리단의 활동도 예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직속의 위촉직에서 벗어나 디자인관리단장을 공무원화하는 것이 지속화의 한 방안이지만 행정 부시장제가 없는 인구 10만 정도의 영주시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각 부서별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부시장급의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인 영주시

### 디자인관리단의 성과와 시사점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은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도시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시간의 축적을 필요로 하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 장소중심의 다양한 사업의 연계에 의한 통합과 협력디자인의 시너지 효과 창출



<b>사업주관부서</b> 국토부 경관문화팀	<b>협조 공공기관</b> 철도청 세무서 교육청
<b>사업추진시</b> 영주시	<b>용역팀</b> 마스터플랜 계획 지구단위계획 조경 가로공공시설물 디자인지침
<b>주관부서</b> 도시디자인과	<b>민간조직</b>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팀 지역 NGO단체
<b>관련부서</b>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와 주택지적과 교통행정과 경제활성화팀 투자유치팀	
<b>디자인관리단장</b> 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auri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공공기관(교육청, 세무서, 철도청), 지역부서간(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주민참여(주민과 민간NGO단체, 마을만들기팀)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간의 협력과 조정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합디자인에 의한 극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한 사례

출처 : 이소진, 삼각지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자료 ppt (미발표 자료의 그림 일부변경), 2011

그동안의 활동이 만들어 낸 성과라기보다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디자인관리단장은 농촌기술센터의 조성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행정직 담당자의 디자인 자문 때 PQ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과 친환경체험단지계획과 공세계박물관 사업을 단지계획과 박물관계획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권장했다. 그리고 공·사과 친환경 체험단지계획의 과업지시서와 예산을 검토하고 발주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하고 발주업무를 대리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기획업무를 전문가가 지원해 기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박물관 조성계획의 발주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정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디자인관리단은 지원해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

또 시내 중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국토디자인 시범사업(2009) 진행 중인 삼각지 공원부지에 대상지를 찾지 못해 시외로 대지를 선정하려던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주민과 담당자와 협의해 유치했다. 디자인관리단은 다른 부서 간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디자인관리단장과 전문 분야별 공공건축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시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관리와 책임 있는 자문이 가능토록 했다. 또 디자인관리단장은 연초에 디자인 관련 사업을 선별해 직접 관리대상과 간접 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행정과 함께하는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영주시 디자인 시범사업은 지난 3년간 보건진료소 3건, 경로당 5건, 면사무소 리모델링 1건, 읍사무소 재설계 1건 등이 진행됐으며 주민과의 협의, 전문가·행정·시공자와의 협조,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가치향상을 통한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영주시는 도심발전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적 차원에서 비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영주시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쇠퇴한 도심환경을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도심재생 사업

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마스터플랜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총괄조직, 그리고 디자인관리체계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추진조직으로 인식돼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재정자립도 18%로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영주시에서 이러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5년간 9개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총사업비 25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향교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주변에 거점으로서 지자체 사업인 향토음식체험관 조성사업(2009)과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2011)을 연계하고 통합 관리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주변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정착시키고 그 성과가 타 지역의 선례가 돼 '전문가 주도-행정 지원' 체계인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지원시범사업(2012)을 추진하는 데 모델이 되기도 했다.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의 활동은 기존 행정의 시스템 내에서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일반화되고 지속적인 실행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지원과 변화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개선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이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 역시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준 담당공무원들 덕분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지원시범사업 대상지인 거창·완주·하동에서 오늘도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 지역총괄형 공공건축가 분들의 열정이 공공건축가 제도의 앞날을 밝게 만들고 있다.

1기 공공건축가 윤승현 소장(인터카드 건축사사무소)이 설계한 조제 보건진료소는 제7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2012)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과 한국건축문화대상(2012)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공공건축가 최재원 소장(디자인그룹 오즈)이 설계한 풍기읍사무소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2012) 우수상과 한국농어촌건축대전(2013) 대상을 받는 성과를 만들었다.



영주시 디자인 시범사업 '조제보건진료소' © 김재윤

1기 공공건축가 윤승현소장(인터카드 건축사사무소)이 2011년 3월 부터 6개월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였음, 제7회 한국농어촌 건축대전(2012) 한국농어촌 공사사장상과 한국건축문화대상(2012) 국무총리상을 수상



영주시 디자인 시범사업 '풍기읍사무소' © 황규백

최저가 전자입찰에 의한 건축가 선정으로 공공건축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디자인관리단의 권유로 담당자의 합의와 시장의 인가로 재설계를 결정하고 좋은 건축가를 제안하여 건축가 최재원 소장(디자인그룹 오즈)이 선정(2012년 준공),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2012), 우수상과 한국농어촌건축대전(2013) 대상을 수상



통합적인 사업연계를 통한 거점마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촉매역할 © 영주시청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델이 된 향토음식 체험관(좌측)과 참사랑 지원센터(가운데)와 공유마당 전경 그리고 뒷쪽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와 공원과 주차장이 보임, 참사랑 주민지원센터는 1기 공공건축가 김수희소장(플로어인 데스트리얼 디자인)이 주변과 연계하여 설계하였음, 공공건축상 국토해양부 장관상(2012),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2013), 제1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 장려상(2013) 수상